

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원인 때문에 마음거울에 때가 묻었으니 욕심이 다 없어지면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볼 수 있다. -설경스님-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시립미술관 무등동 3층 301호에 입주합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이라고요? 아직도 일선 생활 현장에서는 자체적인 통신망은 고사하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용량의 컴퓨터를 갖춘 사람이 드물다고 봐야지요. 이런 현실에서는 인터넷은 먼 나라의 이야기겠지요."

승가대학을 다니는 한 학인스님이 인터넷 시대를 맞는 불교계 현실의 허상과 실상을 지적하는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드자

말이다. 중생들은 인터넷 정보의 바다 속에 살고 있건만, 이를 제대로 교화에 나서야 하는 불교인 인터넷 활용은 흥도 없이 싸움터에 나선 용사들 마냥 뒀가 앞뒤가 어긋나 있다는 지적이다.

설령 컴퓨터를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편 팩스 신도관리 정도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는 형편이다. 정보의 꽃이 흐르는 인터넷 직장을 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 수준의 스님과 종무원들이 상당수로 알려진 현실에서 이를 기대하기란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불교정보화는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단편한 말이지만, 1차적으로 사찰마다 보유해야 하는 교육으로 무장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상식적이다. 사찰에서 컴퓨터 활용에 실습조차 할 수 없는 여건에서는 컴퓨터를 즐기고 이용하는 중생들을 교화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 볼 수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스님과 재가 불자들을 거둔다는 취지에서 봐도 사찰마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갖추는 것부터 불교인 인터넷 시대를 열어라 한다. 그 이후 컴퓨터에 자주 달라 들어 자연스럽게 친숙해지면서 활용도를 넓혀가는 것이다.

50만개가 넘는다는 사이트들을 넘나들면서 지식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통신도 하고 교리 상담성 채팅도 하면서 중생이 어떻게 아파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인터넷 포교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02)700-0108

은행지포 번호: 8003478번

정부 '장기기식법' 시행... 뇌사 합법화

장기기증운동 활기떨듯

화장확산도 예상...교계 남골시설 부족

지난 1일 정부가 '장기기기식'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명나눔실천회는 스님과 각급 신행단체에 따라 교계의 장기기증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맞물려 화장문화도 폭넓게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이를 뒷받침할 남골시설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정)는 이번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장기기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불교계 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1



김대중대통령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중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지역갈등 해소와 사회안정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불교 공동취재단

"지역갈등 해소 불교계 앞장" 당부

김대통령, 불교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

김대중 대통령과 불교지도자들은 1일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불교계 현안과 지역갈등 해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는 중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을 비롯해 20여명 종단 총무원장과 교계연론사 사장,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등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2년 동안의 치적을 설명하고 불교계가 지역갈등 해소와 사회안정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또 양천구민체육센터를 불교중앙교관(조계종총무원)이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과 관련,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검토해서 시장하라고 말했다.

이날 중단협의회는 14개항의 '불교계 대정부 건의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찰주변 환경 보존 △국립공원 입장

방승위원 '기독교 일색'

조계종 원로회의등 '종교편향 인사...시정해야'

조계종 원로회의의 의장 탄성 스님과 부의장 종산, 도원스님, 총무원장 정대, 교육위원장 일면, 포교위원장 정연스님, 중앙총회 의장 방승스님 등 의장단을 비롯 중앙총무기관 부장들은 방승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2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각 정당에서는 이번 방승위원 추천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이 성명을 발표하며 원로회의의 의장단과 3인장, 중회의장, 중앙총무기관 부장들이 연명하기를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탄성스님 등은 성명에서 "언론정책에 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추천되지 못하였으며, 고질적인 명예 기층에 한하여 종교간 협력성이 저

비용-송암스님 영결식 봉행

조계종 원로회의원 비용스님(일명사 조실) 영결식이 1일 일명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됐다. 영결식은 원로회의의 의장 탄성스님과 부의장 종산스님, 전 조계종총정 서암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비용스님은 1월 28일 세수 1백백세, 법랍 73세를 일기로 일명사 방산굴에서 입적했다. (비용스님 행장 3면)

중요무형문화재 제 3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 송암스님(영산재보존회 총재) 영결식이 3일 서울봉림동 봉원사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영산재보존회 회장, 봉원사 신도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재보존회장으로 봉행됐다. 송암스님은 1일 오전 6시30분 세수 88세, 법랍 67세를 일기로 봉원사 선법전에서 입적했다. (송암스님 행장 7면)

KCRP 새 회장에 정연스님 추대될듯

한국종교인명학회(KCRP)는 17일 서울경운동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회장 추대와 올해 사업계획

10월 불교문화 엑스포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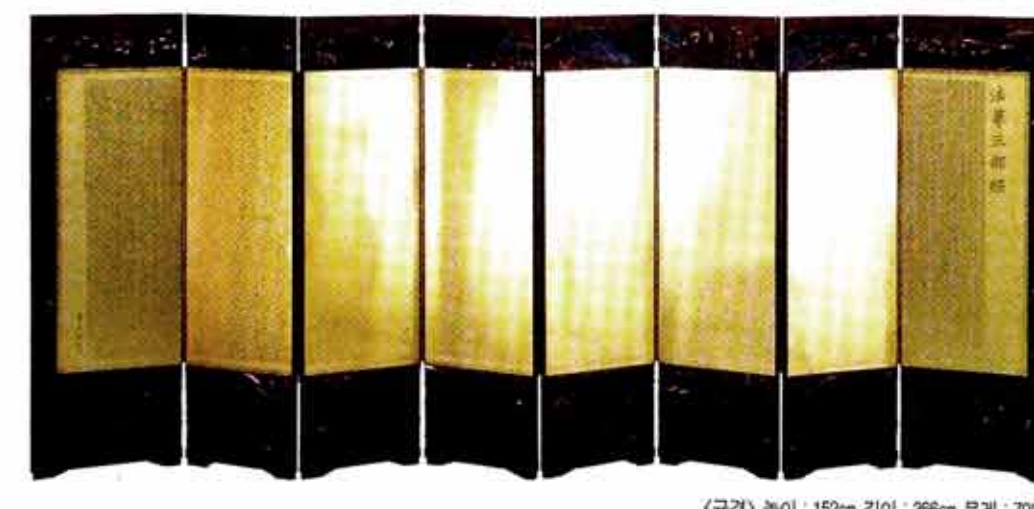
불교 검색사이트 '선재' 떴다

현세(現世)의 불자들이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家寶)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성품(聖品)

법화삼부경(一名, 법화경) 금니 8폭 조각 병풍

특징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가 8폭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일체 조각되어 99.9% 승금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쪽마다 연꽃, 구름, 법륜, 화날,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배색은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색칠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승금으로 도금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려운 선조님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류 한복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손상의 우려가 있어 한류 한복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문화예술회관 직립 모서리 드립니다.



"영가 천도의 중요성"

※이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 본 병풍을 모신 손님과 불자들에게 있어선 신비스러운 사례
- ① 집안의 공기가 병풍에서 빠져나오는 법기(法氣)의 영향으로 맑아지면서 집안에 생기가 가득하고 앞으로 6개월밖에 못산다는 중환자가 건강이 훨씬 호전되어 낫아지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 ② 도산 직전에 있던 회사가 사장이 이 병풍을 모신 후부터 매출이 몇배 성장되고 우연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생기고 하여 이제는 완전히 회생하였다.
 - ③ 자손이 없어 고만하던 사람이 병풍을 모시고 그 일에서 2개월 정도 기도후 아기를 갖게 되었다.
 - ④ 집안에 도적이 들어 온 집안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에 현금과 보석이 가득한데 그것을 훔치고 간 것은 병풍의 법기(法氣)가 재산을 지켜주었다고 본다.
 - ⑤ 사법시험에 응시하던 실패했던 고사생이 집안에 병풍을 모신 뒤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 ⑥ 수험생을 둔 학부모 7명이 모두 병풍을 모신 뒤 원하는 대학에 특차로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 ⑦ 기독교를 믿고 있던 사위가 병풍을 모신 뒤 바로 불교로 귀의하면서 매일같이 병풍앞에서 3배씩 절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병풍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 ⑧ 37세의 노처녀가 병풍을 모신 뒤 2개월 만에 출가 현의사를 만나 결혼하였다.
- # 상가 효험사례 외에 병풍을 모신 사람마다 크고작은 집안의 경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들이 모두 병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집안이 화목해지고 어떤 일을 하던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떤 힘(力)이 도와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작용들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 ※ 연락주시면 카달로그 및 설명서 보내드립니다

성지 관음회

전화: (0335) 334-9490, (0335) 334-9491

야간: (0342) 706-306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